

“북한동포 위해 촛불 들 때”

40일째 ‘北 기아돕기 단식기도’ 중인 법륜 스님

정교회 법륜 스님이 7월 4일자로 단식 40일째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법륜 스님은 5월 26일부터 곡기를 끊고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단식기도 중인 법륜 스님을 정교회관에서 만났다.

북한은 2년 연속 수해에 따른 흉년과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 외부 지원 감소 등으로 10년 만에 대기근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은 대량아사사태가 발생하려는 초기단계이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륜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 북한에 식량 20만 톤을 지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않으면 90년대에 발생한 대량 아사(餓死)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무리 굶어도 안 되니까 ‘나’라도 굶어서 아픔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배가 고프면 동포들이 굶어죽는 것에 대한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기도한다



7월 4일 현재, 40일째 단식기도 중인 법륜 스님.

면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올해의 기아는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아사와는 다르다고 한다. 북한에는 4000여개의 마을이 있는데 하루에 한 마을에서 두세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

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주민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두어 달 정도 우선 급한 것이 20만 톤이다. 미국이 5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물량이야 보니 춘곡기인 5월과 7월 사이에 발생하는 아사를 막기에는 역부족

인 것이다. 법륜 스님은 “지금 북한의 상황은 지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정부가 식량 20만 톤을 북한에 보낸다면 그것은 냉각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최소한의 담보물은 될 것 이라한다.

법륜 스님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북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소리 한 번 지르지도 못하고 죽어 가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는 자기 입에 들어오는 쇠고기가 위협하다고 시위를 벌이고 미꾸라지 풀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된다고 대운하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동포가 굶어죽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촛불을 들 때라 했다.

법륜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여실히 깨달아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촉구했다.

글 사진=문윤정 논설위원



북한 기아돕기 캠페인을 위해 도보행진에 나선 ‘행진21’ 회원들.

“굶주린 동포 위해...가자, 북녘으로”

‘행진21’ 도보행진 나서

북한동포돕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행진21(단장 권완수)’은 7월 4일 서울 독립문에서 북한식량지원 촉구하는 도보행진

‘생명의 옥수수, 북녘으로 한걸음’을 시작했다.

‘행진21’에 참가한 30여명의 청년들은 7월 4-5일 1박 2일 동안 옥수수와 쌀을 짊어지고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약 50Km 구간을 도보행

진한다. 행진에 앞서 ‘행진21’은 호소문을 통해 “1만원이면 북한동포 한 가족을 한 달 동안 살릴 수 있고, 1000원이면 북한동포 한명을 열흘간 살릴 수 있다”며 정부의 긴급대북 식량 20만 톤 지원, 민간단체의 긴급대북 식량 1만 톤 지원, 일반시민 옥수수 20kg(1만원) 모으기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글 사진=노덕현 기자

정부 종교편향 예방 국무총리 특별 지시

이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대해 불교계가 법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7월 4일 ‘종교적 편향성 오해 불식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하였다.

한 총리는 이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부처에서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종교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해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진 중무실장은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의 사찰지명 누락과 여정수 경찰청장의 개신교 행사 포스터 사진 게재 등의 사례가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광 실장은 “불교계 등에서 제시하는 종교편향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내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문화재청, 각 지자체 보급

중요문화재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이 배포돼 화재발생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7월 2일 국보 21개소, 보물 122개소 등 143개소 중요문화재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별 주변환경, 화재에 방공조치 구축 등 일반적인 사항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신고 및 연락체계 등 화재발생시 조동진화 ▲소산 우선순위, 소산 목록 및 절차 등 소산활동 ▲소방·전기·가스시설물관리, 산불방지 활동 등 화재예방활동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도면, 시설물관리 점검표도 수록됐다.

2006년 6월 문화재청의 <문화재재단대응 매뉴얼>이 일반적 인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다룬 수준이었다면, 이번 매뉴얼은 실 효성 검증을 위해 방재 관련 학계, 협회 및 관련부처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답사를 통해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실시한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 “종교편향 중단” 한목소리

곳곳서 성명서 잇따라...불교연석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종식’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중앙신도회 등 20개 불교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연석회의(공동위원장 손안식)’는 6월 3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종교적 코드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불교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공개 참회 및 대국민 사과 ▶종교 편향

행위를 자행한 공직자(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정보시스템 ‘알고가’에 사찰 정보를 누락한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국 경찰복음화 음식대성회’ 포스터에 등장한 여정수 경찰청장, 교내 불교문화재를 훼손한 주영기 경기도 교장의 참회와 사퇴 ▶공무원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주의 훈령 시행 보장 ▶촛불시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중단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4년 ‘서울시 불현’ 발언 이후 4년만에 재결성된 불교연석회

의는 “이번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불교연석회의를 존속시켜 ‘현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교연석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0여 개의 본·말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기독교 공화국?’, ‘이명박 정부에는 교회밖에 없다? 종교 편향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2개 이상씩 일주문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교 편향 종식’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5만 부와 포스터

1000장을 제작해 전국 본말사에 보낼 계획이다. 불교연석회의와는 별도로 ‘종교 편향 중단 촉구’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됐다. 영남지역 교구본·말사 주지스님들이 6월 2일 규탄 성명서를 채택한 데 이어, 호남·충청, 경기·강원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도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우·김강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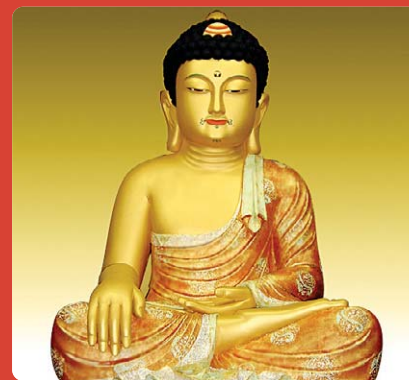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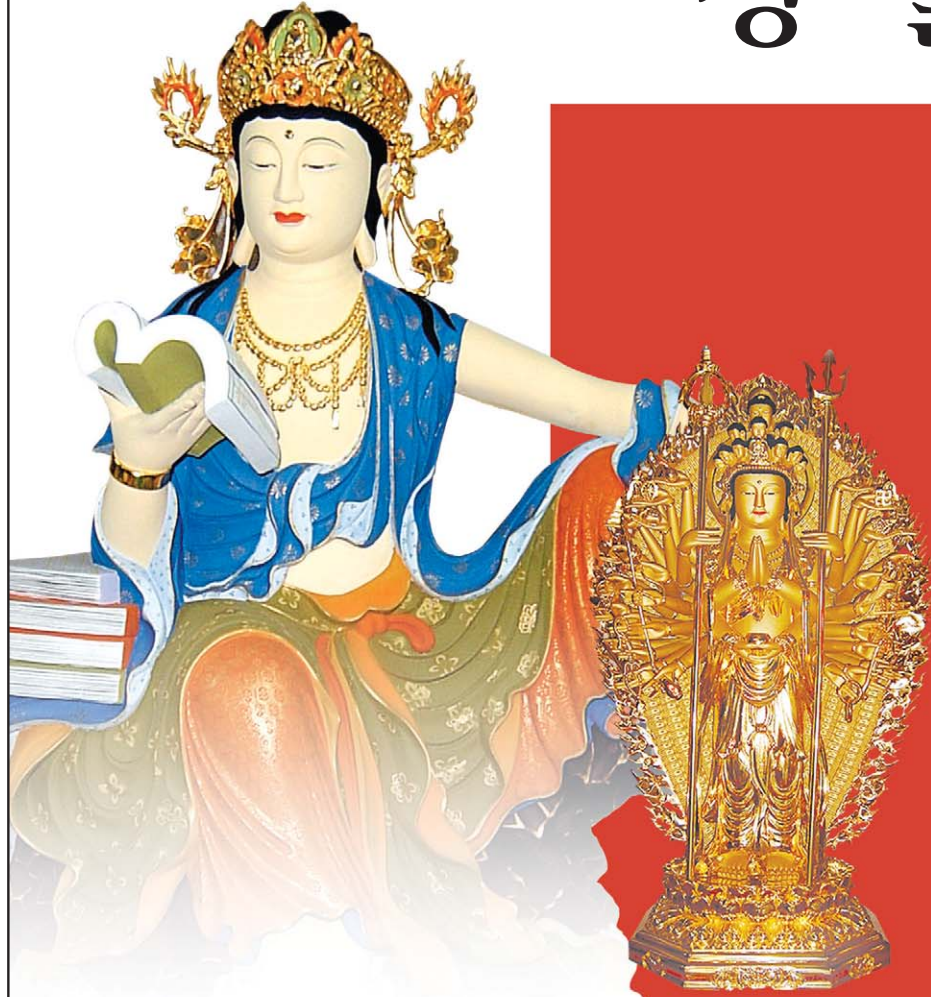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www.mamirobot.co.kr

NAVER 7월 9일 마미로봇 특가 행사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은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 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